

5월 12일은 부처님 오신날

# 광주 U대회 유치 기원 연등 밝힌다

### 광주·전남 사찰 3보배·연등 꼬리표 달기 등 4대 종교와 함께 문화제 열며 '한마음 축제'

불교 최대 명절인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12일)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사찰들이 다양한 봉축행사를 마련했다. 외국인 노래자랑, 가톨릭·기독교·원불교 등 4대 종교가 함께하는 문화제, 전시회 등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특히 올해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법회, 3보배, 연등 꼬리표 달기 등의 행사도 열려 축제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와 광주·전남 봉축위원회(회장 성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빛고를 연 등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2013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티베트 평화기원을 위한 3보배 정진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제등행진, 대동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진 및 대동한마당은 5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급남로 옛 도청 앞에서 열린다. 봉축무용과 노래, 인기가수와 청소년 댄스팀 공연 등이 펼쳐지며 풍등 날리기, 불꽃쇼, 탑돌이, 강강술래도 진행된다. 062-376-3223.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0~12일까지 미황사 일대에서 '망월 문화제'를 개최한다.

첫날인 10일 오후 1시 완도 보길도 세연정에서 숭령상과 갯벌발길 걷기를 진행하고, 오후 6시에는 팍팍마을 불교 맞이 의식과 함께 국제 음악회를 연다. 11일 오후 7시에 열린

는 '인도음악과 함께하는 명상제'를 통해 인도바울 예술단 호리불의 공연도 볼 수 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봉축 법요식, 경로잔치, 팍팍 해남 어르신 노래자랑이 이어진다. 061-533-3521.

담양 백양사(주지 성오)는 12일 봉축 법요식을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외국인과 백양사 신도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061-392-7502.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12일 오후 6시20분 경내에서 '생명의 강을 노래하는 연등음악회'를 연다. '종교인 생명의 강 100일 순례팀'과 함께하는 행사로 박남준 시인의 시 '영산강아' 낭송 등이 진행된다. 061-334-2880.

광주 무각사(주지 정학)는 지난 1일 오후 국제대학교스포츠클럽(FISU) 실사단 방문에 맞춰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 도로에서 U대회 유치 성공 기원 연등 꼬리표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2일부터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별기획전 '그림습니다 언니'전을 경내 문화관에서 갖는다.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봉축문화제에서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가톨릭합창단,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음합창단, 광주무진교회 성가대, 무각사합창단과 시립국극단, 청소년 문화공용체 '아우름'이 어우러져 합창을 선사한다. 062-383-0108.

광주 원각사(주지 도재)는 12일 오전 10시 법요식을 열고 독거노인 봉사단 등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신도들에게 봉사상을 시상하고, 신도회에서 추천한 장학생에게 장학금도 수여한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원각사 청년회 '빛울림' 풍물패의 지신뱃기 공연과 봉축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달마 그림 시연회, 감금래 무용단의 살풀이 등 각종 공연이 이어진다. 062-266-0326.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연등 꼬리표 달기 행사가 1일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열렸다.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가운데) 등이 꼬리표를 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종교칼럼



박병주

에릭 클랩튼이란 가수는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는 불행과 아픔, 상처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1945년 3월 30일 영국에서 16살 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엄마를 누나로 알고 자란 그는 14살 생일 때 외할머니로부터 기타선물을 받고 블루스에 빠져들었다.

그는 "어렸을 땐 늘 외롭고 펄박을 당하면서 살았죠. 자존심과 위신,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바로 블루스 음악이었다"며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후에 가수로 데뷔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도 술과 마약에 빠져 알코

## 천국에서 흘리는 눈물

을·약물 중독으로 병원과 요양원을 오갔고, 문란한 사생활로 늘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투어 중 만난 젊은 사진작가이자 배우인 로리 델 산토(Lori Del Santo)와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 아들 코너(Corner)가 태어나면서 그는 달라지기로 했다. 술과 마약을 끊겠다고 신 앞에서 수없이 약속을 했지만 그 결심은 매번 물거품이 됐다.

어느 날 아내와 딸따름 끝에 집에서 나왔을 때 창가에 놀던 아들 코너가 뉴욕 맨하탄 55층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고 만다.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던 그가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가질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들 코너의 죽음은 '세상의 끝'으로 밀려난 것만 같은 좌절감을 그에게 안겨줬다. 아들의 장례식 치른 후 "아빠 사랑해요"라고 쓰인 편지가 런던 집에 배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에서도 그는 기타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기타와 노래에 더욱 몰두하면서 음악만이 '유일한 치료'라는 것을 이진 경험으로 깨달았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천국에서 흘리는 눈물(Tears in heaven)'이라는 곡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천국에서 나를 만나면 너는 나를 알아보겠니? 하지만 나는 이곳(천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하게 계속 살아야 한다'는 가사처럼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어를 시작하고 재기에 성공한다.

에릭 클랩튼은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시대의 거장으로 또 새 가정의 가장으로 현재 잘 살고 있다.

또 아들 코너의 죽음을 기리며 카리브해 앤티카라는 작은 섬에 700만 달러를 들여 마약중독센터를 짓고 그들을 손수 돌보고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부부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여쭙구니없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재기한 에릭 클랩튼의 뛰어난 기타 연주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겨본다. <광주열린교회 담임 목사>

## 광주 첨단종합사회복지관 효사랑 카네이션 만들기

첨단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남성)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효사랑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7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부처님 일대기 애니메이션으로 본다

###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용 '붓다' 제작

"부처님 오신 날(12일)에는 부처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을 감상해 보세요."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최근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해 종단 처음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붓다'는 부처님의 생애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해 만든 50분 분량의 고품질(HD) 애니메이션으로, 오는 12일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또 5월중 어린이포교 사이트인 '키즈붓다(http://kidsbuddha.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포교원은 향후 전국 사찰에서 어린이법회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9편의 단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붓다'는 지난해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 사업 일환으로 시나리오 작업, 캐



릭터 개발, 음악작업 등을 거쳐 총 1년간의 제작 기간 끝에 완성된 작품이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붓다'를 바탕으로 다양한 포교용 콘텐츠를 추가 개발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전업 주부 등 여성 취업 지원

### 여성부, 173개 교육훈련 과정 통해 4,300명 일자리 마련

여성부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여성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여성, 전문직종 지원 여성, 남성 집중 분야 지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173개 교육기관에서 4천300여명이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58개 기관에서 82개 과정을 개설해 1천 990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73.9%인 1천470여명이 취업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고용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협력망'을 통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나 과정에 따라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

리실무전문가, OA실무전문가, 방과후 아동지도사, 영유아케어전문가 등 중소기업이나 복지, 교육, 문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에는 나이나 학력,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항공여행 컨설턴트, 패션코디 기획자, 관세 및 물류산업 분야 등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고학력 미취업 여성 지원 사업은 35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또 전문직종 취업 지원 사업은 웹2.0 개발자, 게임그래픽아티스트, 출판디자이너 등 문화서비스 산업 및 고급 IT 분야의 전문직종 과정으로 진행된다. /연남스

A large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real estate, education, and services. Notable ads include '광고성수인네', '한도비밀그림자비밀상황대응연미', '올이은이 공기청정기', '주부소미네', '미재정', 'SONY 모든것', and '중고자동차 전자중매일·판매'.